

## 2003년도 경기전망 - ① 국내인쇄 분야



김광륜 프린팅코리아 차장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기요인을 보면 올해도 인쇄업 경기의 시작은 착잡하다. 올해 국내 경기전망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인쇄경기 상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감경기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오리무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올해 인쇄경기 적색경보

최근 인쇄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대심리와 실질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기업간 경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전망 기관들이 내놓은 인쇄업종의 전망치를 보면, 계절적 성수기를 바탕으로 대체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1/4분기 경기전망 BSI의 국내 제조업 평균이 88인 것에 비해 인쇄업은 110으로 조사돼 다른 업종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전망 기관들의 조사대상이 중견 규모의 법인기업들이기 때문에 인쇄업계를 전체적으로 전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들 간의 경기 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기대치에 비해 실질 체감경기의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은 물량수주난과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어렵게 따낸 인쇄물 수주물량을 납품해도 결제기간이 지연되면서 물량난·자금난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강도가 추운 겨울 찬바람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기업과 중견기업간의 경기양극화는 물론 중견기업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예년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과당경쟁에서 오는 물량난은 당분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쇄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경기는 지난해보다 저하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쇄물 수출 경기도 불안

올해 인쇄업 경기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우선 내수시장은 지난해 4/4분기 가동상황이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70%에 훨씬 못 미치는 60%중반대를 나타낸 바 있어 당분간 가동률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주산업인 인쇄업 내수경기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경기 또한 중국 등 경쟁국과의 다툼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하기는 역부족이며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당경쟁에서 오는 단가하락과 외상 및 장기 어음 등 미결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사정이나 수익성도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인쇄업의 경기양상을 대변하듯 올해 중소기업의 경기전망도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쇄업을 포함한 전국 1천5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도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업황을 나타내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99.8로 나타났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가중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서 산출한 경기전망지수로 이 값이 100 이하면 전보다 악화되고, 100 이상이면 호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력난·단가문제 여전할 듯

특히 올해 중소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으로는 '인력확보'(55.1%), '제품가격'(44.6%), '자금조달'(33.9%), '판로확보'(33.7%), '고비용구조'(19.5%) 등의 순으로 응답해 절반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구인난'과 '단가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인쇄업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다.

또한 올해 중소제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경제불안'(6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인력수급'(39.4%)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올해 국내외 경제환경전망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악화' 57.2%, '올해와 비슷' 25.1%, '호전' 17.8%로 응답하고 있어 올해에도 내수경기 위축과 미국, 일본 등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절반 이상의 중소제조업경영자들은 국내 경제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인쇄업계의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국내 경제상황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쉽게 풀리기 어려운 대내외 위험요소들이 많아 상호연쇄작용을 일으키면 국내 경제가 다시 침체를 맞을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올해 인쇄업 경기가 상당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쇄업은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불투명한 인쇄업 경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외여건이 불안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일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국내 위험요소로 부동산가격 급락과 가계 파산 등을 들었다. 또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과거청산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커다란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실기업 정리 등 결단이 필요한 정책들이 뒷전에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2004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 다툼으로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위험요소로는 대이라크전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 미국 경기의 재침체를 들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올해 국내 경제는 물론 인쇄업 경기전망의 스케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